바이오 아이디어 대상 전북대 정효영

제1회 바이오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은'글라이코실레이즈를 이용한 진단시약 개발' 작품을 낸 전북대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의 정효영씨(30)에게 돌아갔다.

매일경제신문과 바이오벤처인 서린바이오사언스가 젊은 생명공학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와 연결시키고, 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상이다.

우수상은 창원대 전상훈 씨(당알콜 생성균주를 이용한 김치의 상온 유통)와 서울대 김민식씨(단백질 과량 발현 시스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은채 씨(재조합단백질발현 및 검출시스템) 등 3명이 공동 수상했다.

시상식은 2월28일 오전 10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중강당에서 치뤄질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노트북 컴퓨터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바이오 아이디어상 심사에는 서울대 강현삼 교수, 고려대 이세영 교수, 고려대 김익영 교수와 서린바이오 황을문 사장이 참여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19>